

# 전남도, 어린 연어 40만 마리 방류...섬진강 수생태계 복원 '앞장'

### 29년째 자원 조성...어린이집 원생·환경단체 등 100여명 참여 수산자원 관리 핵심 기술 '이식 표지'로 회귀 경로 과학 분석

전남도가 섬진강 수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확대를 위해 어린 연어 40만 마리를 방류했다.

연어 회귀 경로를 과학적으로 추적하는 기술도 함께 적용되면서 자원 관리의 정밀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16일 구례군 섬진강 수변공원 일원에서 '어린 연어 방류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29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집 원생과 초등학생, 환경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방류 현장을 함께 했다.

이날 방류된 연어는 지난해 10~11월 섬진강으로 회귀한 어미 연어에서 채란·부화한 개체로, 약 40일간 하천 적응을

거친 뒤 자연으로 돌아갔다. 이들 연어는 바다로 이동해 북태평양 알래스카 해역까지 성장한 뒤 3~5년 후 다시 섬진강으로 돌아오는 회귀 생활사를 반복하게 된다.

특히 이번 방류에는 '이식(깃속뼈) 온도자극 표지' 기술이 적용됐다. 부화 과정에서 수온을 조절해 이식에 고유 패턴을 남기는 방식으로, 향후 회귀 개체를 분석해 이동 경로와 개체군 구조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수산자원 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섬진강어류생태관은 어린 연어 성장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특별기획 전시를 3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생태 교육 프로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최근 구례군 섬진강 수변공원 일원에서 '어린 연어 방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집 원생과 초등학생, 환경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방류 현장을 함께 했다.

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방문객에게 생물 다양성과 수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1988년부터 현재까지 어린

연어 1178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이 가운데 약 6700마리의 어미 연어가 섬진강으로 회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적인 방류 사업이 실제 자원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연어는 섬진강 생태계 건강성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종"이라며 "연어와 다슬기

등 자원 조성을 지속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환경 보전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육상연맹은 18일 빛고을초등학교에서 '초등 대표선수단 물품 지원 및 격려 행사'를 가졌다.

## 광주시육상연맹, 꿈나무 선수단에 물품 지원 빛고을초등학교 방문...훈련용 운동화 등 전달

광주시육상연맹이 지역 육상 꿈나무들의 원활한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후원에 나섰다.

광주시육상연맹은 18일 오전 11시 빛고을초등학교에서 '초등 대표선수단 물품 지원 및 격려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물품 지원은 광주 육상의 미래를 책임질 초등학생 유망주들이 훈련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맹은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초등 육상 선수들과 이들을 헌신적으로 이끄는 지도자 등 25명에게 필요한 훈련용 물품(운동화)을 직접 전달했다.

김민주 광주시육상연맹 회장을 비롯한 연맹 임원진은 이날 행사에서 선수, 일선 지도자, 학교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노고에 감사사를 표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육상연맹이 초등선수단의 거침 없는 질주를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연맹은 앞으로도 어린 선수들이 부상 없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김민주 광주시육상연맹 회장은 "어린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기량을 갈고닦으며 국가대표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물품 지원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광주 육상의 든든한 뿌리가 되는 초등학교 체육 발전과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해 연맹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육상연맹은 이번 초등선수단 물품 지원을 시작으로 지역 육상 저변 확대와 유소년 선수 발굴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신동식 학동 지사협 위원장은 "위원들

## '여수음악제' 성공 개최 위해 손잡았다

### 시, KBS교향악단 등과 업무협약 체결 섬박람회 연계...문화도시 위상 선도

여수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재)여수음악제, (재)KBS교향악단과 '제10회 여수음악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박용하 여수음악제 이사장,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관 간 상호 협력, 여수음악제 및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클래식 꿈나무 육성 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 10회째를 맞는 여수음악제는 2026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해 운영되며 여수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선보여 문화도시 여수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박용하 이사장은 "여수음악제가 10회



여수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재)여수음악제, (재)KBS교향악단과 '제10회 여수음악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째를 맞아 지역을 대표하는 클래식 축제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음악제로 발전시키

게 무대에 올라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은 "여수음악제는 지난 10년간 시민과 함께 성장해온 대표 문화예술 행사"라며 "섬박람회와 연계해 음악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여수의 문화 저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0회 여수음악제는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GS칼텍스 예술마루와 여수시 일원에서 열리며 KBS교향악단을 비롯한 국내외 정상급 음악가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클래식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동구 학동 지사협,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 '돌봄이웃 반찬 나눔'...안부·생활 전반 상황 살피

광주 동구 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8일 '힘내세요! 돌봄이웃 반찬 나눔'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이웃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사협 위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을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고, 생활 전반의 어려움도 함께 점검했다.

신동식 학동 지사협 위원장은 "위원들

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반찬이 돌봄이웃들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나눔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학동장은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세심하게 살피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 동구 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8일 '힘내세요! 돌봄이웃 반찬 나눔'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눴다.

## 게시판

**알림** ▲일기정양리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클레니지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운세 (음력 2월 1일)

**쥐** 48년생 주변에 아랑과 덕을 베풀어라  
60년생 사업상의 많은 손해가 생길 것  
72년생 어딜 가든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다  
84년생 좋은 일로 짐을 떠나 이동하게 된다  
96년생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있다

**토끼** 51년생 협력자 방음이 있을 것이니 준비하라  
63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지 손실이 없다  
75년생 손실이 일어날 징조가 있으나 조심  
87년생 겸손하면 놀랄만한 성공을 거두겠다  
99년생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라

**말** 54년생 문서를 주고받을 좋은 운  
66년생 고집대로 일을 처리하지 마라  
78년생 문서 놓고 싸우지만 결국 이긴다  
90년생 건문을 확대 시키는 좋은 계기다

**돼지** 57년생 가슴에 남을 만한 일을 겪겠다  
69년생 무리하면 현재보다 결과가 안좋다  
81년생 행운을 가져다준다  
93년생 변화를 꾀하면 어려움에 처한다

**소** 49년생 손해 볼수 있으니 너무 앞서 가지 말라  
61년생 인복이 있어 많은 이익의 도움을 받을 것  
73년생 자녀로 인한 구실수 조심하라  
85년생 모든 것에 미련을 버리면 통한다  
97년생 경제적 빈곤이 걱정된다

**황소** 52년생 지인에게 부탁한 일은 기대하지 말라  
64년생 뒷사람의 도움을 받게된다  
76년생 기존 패턴을 바꿔 새 국면이 열린다  
88년생 절대로 신규는 도모하지 말라

**양** 55년생 문서에 욕심 부리면 송사까지 확대된다  
67년생 손해가 있어도 뒷사람과 다투지 말라  
79년생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라  
91년생 여행·출장 등 보류하는게 좋다

**개** 58년생 파격적인 발전의 행보로 이어지겠다  
70년생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길하다  
82년생 이성과 있었던 미묘한 갈등이 해소된다  
94년생 구슬수에 오를 수 있으니 이성 조심하라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호랑이** 50년생 부탁한 일에 좋은 소식 있을 것이다  
62년생 부동산 거래는 순조롭게 이뤄질 것  
74년생 확신이 서지 않으면 미비점을 찾아라  
86년생 금전 지출 분수에 맞게 생활을 하라  
98년생 자제를 낳고도 경청하라

**범** 53년생 욕심 부린 만큼 손해다  
65년생 주변에서 귀하를 음해하고 있다  
77년생 부딪힘을 치우면 일이 일어나게 된다  
89년생 평소 바라던 일이 이뤄질 것

**원숭이** 56년생 부동산 거래하기 전 가족과 상의하라  
68년생 득 되는 것이 없는 처지에 있다  
80년생 마음을 비우면 어려운 일도 해결된다  
92년생 적극적으로 개선해보자

**돼지** 59년생 해결의 실마리를 겨우 찾게 될 것이다  
71년생 도처에 귀하의 적들이 있음을 알라  
83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일로 넘치겠다  
95년생 크게 손해 보니 연인 믿고 몸담지 말라